





서가풍경

## 속세 속의 작은 '성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석무 이사장의 서가

주인의 성품을 닮아서일까. 쉽사리 흔들리거나 기울 것 같지 않은 꼴꼴한 자세.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석무 이사장의 서가가 그랬다. 좁처럼 틈을 보이지 않은 채 오연히 도열해 있는 정신의 문자들. 암호문처럼 비의를 감춘 한적들이 무덤 같은 고층아파트에서 신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여유당 전서> 20권, 규장각과 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한 <다산전서>, <조선왕조실록> 56책, 증조부가 손수 필사했다는 <주자대전> <농암집> …

그의 서재를 이채롭게 하는 것은 곳곳에 뻗 다산탐구의 흔적이다. 대학시절부터 열병처럼 몰입해온 다산은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진보적 사상가로서 시대를 앞서 살았던 그는 저의 영원한 탐구대상이지요.” 감동적인 다산의 글을 우리말로 옮기거나 그의 사상을 탐구한 책만도 수십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한학전통과 다산의 실사구시 정신이 그의 서재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누렇게 색바랜 <사기>를 훑어나가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갱지에 찍힌 '사책' 도장이 눈길을 끌었다. 그 아래 '수번 998, 81년 5월 4일 광주교도소' 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다산의 서신을 모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서문에 '민중' 이란 말을 썼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그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면서 읽었던 아픈 기억의 증표였다.

서재 한켠에 적힌 글귀 하나가 그의 서재를 보러 간 길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선렴후락(先廉後樂)' '청렴을 앞세우고 즐거움은 뒤에 누려라.' 공직자로서 그의 철학이 그렇게 기록돼 있었다. - 박천홍 기자

